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업종별 영향



애널리스트	업종	코멘트
이재윤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특수ガ스 원료인 네온, 아르곤, 제논 가스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는 약 50%(양국 합산) 수준으로 원재료 수급이 이슈가 될 것 메모리반도체는 생산차질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극단적인 가정을 할 경우 비메모리,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IT 전방산업의 생산 계획이 낮아져 반도체 외 IT 부품 수요 둔화로 이어질 것
김광진	디스플레이/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업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생산기지가 국내 및 중국에 위치해 있고 원재료 조달 또한 국내 및 중국/일본에서 조달되기 때문 이차전지 업종의 경우 일부 생산기지가 우크라이나 인근 동유럽 지역인 폴란드와 폴란드와 혼가리에 위치해 있어 간접적인 가동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능성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원재료 조달 악재 또한 제한적일 것
백길현	전기/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이 주요 IT Device 공급 제한으로 이어지며 전자부품 업종에 부정적일 것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섹터내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황규원	정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 원유가격 및 천연가스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침. 러시아는 글로벌 원유생산량의 12.6%, 천연가스 16.6%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 물량을 유럽으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이 가동되고 있음.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두바이 유가는 1월 11일 80.1\$에서 2월 17일 94.0\$로 상승.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1월 11일 4.24\$/mmbtu에서 2월 2일 5.5\$/mmbtu 급등한 후 현재 4.6\$/mmbtu 수준에서 강세 단기적 무력충돌 발생시) 무력 충돌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원유 파이프라인 Druzhba(100만 b/d, 글로벌 수요의 1%)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Brotherhood(28bcm, 글로벌 수요의 0.7%) 등의 일시적인 가동 중단 우려가 높음.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단기 강세 불가피 对 러시아 경제재제 가능성) 서방 선진국에서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진행할 때,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금지를 취하지 않을 전망. 글로벌 공급망에 너무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 대신에 새롭게 완공된 Nordstream2 파이프라인 폐쇄, 원유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인력 및 국제자금 통제 등으로 간접적인 압박 가능성성이 높아 보임. 국제 원유/천연가스 공급망 우려가 줄어들면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음 한국 정유사) 원유 도입물량 가운데 러시아산 비중은 5.5% 수준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될 경우, 추가적인 거래비용(1~2\$)이 발생될 수 있을 전망 한국 석화사)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가운데 러시아산 비중은 24% 수준인 반면, 플라스틱 수출 비중은 1.7% 정도임. 러시아산 나프타 거래처를 중동 등으로 전환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다만, 플라스틱 등 석화제품 수출 가운데 러시아향 비중은 1.7%로 크지 않아, 석화업체 수출에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임
이현수	철강/비철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립 사태 당시 니켈 등 주요 광물 가격이 급등한 바 있음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13%, 니켈 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가 단행될 경우, 관련 비철금속의 공급 차질이 부각될 것
이현수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당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가 가해지면서 달러당 루블화 환율은 급등하였음(루블화 가치 절하). 루블화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은 현대차, 기아 등의 영업이익률 훼손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지속되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할 경우, 루블화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존재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신흥국 수요 및 환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김기룡	건설/건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발틱[Ex. DL 이앤씨(1.6조원), 삼성엔지니어링 (약 1.4조원)] Project 등 러시아 내 수주 현장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이로 인한 매출화 지연 우려. 향후 러시아 내 수주 기대감 역시 낮아질 전망 러시아 내 수급 불안에 기인한 글로벌 유연탄 가격 강세는 시멘트사의 원가 부담 가중, 판가 인상의 명분으로 작용할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업종별 영향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애널리스트	업종	코멘트
최남곤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통신업종의 경우에는 금리, 글로벌 경기, 환율과 매출/비용 관점에서 영향 극히 제한적.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통신장비/통신 단말기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CAPEX와 마케팅비용 축소되면서 마진을 개선 전망
이창영	인터넷/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터넷/게임 업종의 경우 원부자재가 필요없는 산업이어서 금리, 글로벌 경기, 환율과 매출/비용 관점에서 영향 극히 제한적
박은정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물류 비용 상승에 따른 운반비 증가,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용기 등의 원부자재 부담이 상승할 수 있음지정학적 이슈 발생 시, 물류 운임과 관련 비용이 상승할 개연성이 높아 수출입과 관련된 비용 상승으로 판관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존재또한 화장품의 주요 원료가 화학제품으로 유가가 상승할 경우 원부자재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존재. 용기 등의 경우 이미 상승했음
박은정	음식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곡물가 상승, 수출입과 관련된 부대비용 상승으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우크라이나 경작 면적은 전세계 면적의 2%, 유럽연합의 30% 해당. 곡물 순수출국으로 유럽/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 집중밀(wheat)의 경우 전세계 밀 수출량의 14%를 차지하는 만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지속 시 밀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지리적으로 국내 기업의 주요 수입국은 아니나, 글로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태 악화 지속시 비우호적이미 2019년 말 이후 글로벌 밀 가격은 30% 이상 상승한 수준으로 상승 추세 지속 중. 이에 따라 해당 곡물을 사용하는 주요 가공식품 가격은 후행적으로 2020년 2분기 이후 가격인상을 단행하였으나, 곡물가 상승 분을 일부 상쇄하는 수준. 추가적인 상승은 기업들의 수익성에 부정적또한 국가간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물류 운임과 관련 비용, 유가 등이 상승할 개연성이 높아 수출입과 관련된 비용 상승으로 판관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존재
이진협	소매/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유통업종의 경우 내수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물가상승, 경기 불확실성 대두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등의 간접적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
정태준	은행/보험/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은행은 국내 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으나 글로벌 밸류체인에 영향이 생기면 국내 업체들의 영업에도 타격이기 때문에 대손비용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보험은 전쟁 위험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하면 자본적정성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금리 상승이 이차역마진이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금리가 많이 상승하여 자본적정성비율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더 상승하는 것은 부담증권은 전쟁 위험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질수록 증시와 거래대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기업분석팀)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 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시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시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